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0(3), 17~28, 2002. 12.

초등학교 지리교육에서 아름다움이 갖는 의미탐색*

- 경관미학을 중심으로 -

박 승 규**

A Search for the Meaning of the Beauty in Elementary Geography Education*

- Fousing on Landscape Aesthetics -

Seung-Kyu, Park**

요약 :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은 단지 예술의 차원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상적인 삶의 영역으로 확대되어졌다. 그것은 미적 인식이 관조론적인 차원에서 참여론적인 입장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Bourassa와 Berleant의 미학은 이같은 맥락속에서 탄생한다. 그리고 그들의 환경과 경관에 대한 아름다움의 문제는 그 이면에 존재하는 의미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의미중심의 지리교육으로, 실존지향적인 지리교육으로 나아가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사실적이고 기능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는 초등학교 지리교육에서 벗어나 새롭게 초등학교 지리교육내용의 성격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주요어 : 참여미학, 경관미학, 미적장, 실존적, 영지리교육내용, 영교육과정, 경관

Abstract : An aestheticians have intended to limit their subject to include only objects of art. In contrast of objects of art, landscape include elements of both art and nature, and the aesthetic experience of landscape are ordinary ones. Thus, the theoretical alternatives, that cannot be like the traditional aesthetic dogma of art, must be explored. Bourassa and Berleant criticizes the limit traditional aesthetics theory. Arnold Berleant suggests his own 'aesthetics of engagement' for an alternative to fit into the contemporary situations of art. Berleant's aesthetics of engagement focuses on the continuity of arts with everyday life, the perceptual and integration and the active participation of objects and perceiver in all aesthetics experience. In elementary geogrpahy education, the 'aesthetics of engagement' considerations, such as Berleant's aesthetics theory and Bourassa's landscape aesthetics, are required for better geography educational contents focusing on meaningful and existential geographical learning.

Key words : aesthetics of engagement, landscape aesthetics, aesthetics fields, existential, null contents in geography education, null curriculum, landscape

* 이 논문은 2001년도 춘천교육대학교 교내 지원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춘천교육대학교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 서 론

초등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지리내용의 성격은 중·고등학교 다루어지는 지리내용의 성격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학습자들의 생활과 보다 밀접한 관련을 맺기 위해 중·고등학교에 비해 비교적 쉬운 예들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그와 같은 사례들을 통해서 학습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지리내용은 중·고등학교와 비교해서 커다란 차이가 없다. 그리고 그것은 통시대적인 차원에서 살펴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다.

학교급별에 따른 지리내용의 성격을 문제삼아야 하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특히 초등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지리내용의 성격에 대해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초등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지리내용 선정의 근거가 모호하여서 초등학교 지리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이다(남호엽, 2002, 15). 그것은 물론 제도적으로 초등학교에서의 지리내용이 사회과목의 일부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와같은 제도적인 차원을 넘어 본질적으로는 초등학교에서의 지리교육에 대한 일반화된 관심의 부재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초등학교 지리교육의 정체성을 찾는 것은 지리내용의 성격과 관련지어서 설명되어 질 수 있다. 지금까지 초등학교 지리교육에 대한 논리의 부재는 곧 지리내용 선정의 애매함으로 이어지고 중·고등학교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을 요약하거나 쉽게 풀어쓰는 수준에서 초등학교 지리내용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초등학교 학습자들을 고려한다면, 중·고등학교 학생들과는 다른 생활세계에서 일상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적합한 내용선정 논리가 요구된다.

초등학교 학생들 나름의 생활세계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일상속에서 소비하고 만들어내는 공간이나 장소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것은 곧 대안적인 초등학교 지리교육 내용을 제시하고자 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인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공간이나 그들의 지리학에 대한 관심은 미미하다. 때문에 그들이 일상속에서 소비하고 있는 공간이나 장소를 선정하고 조직하는 데는 커다란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초등학교 학생들의 생활세계를 중심으로 하는 그들의 공간이나 장소를 중심으로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한다는 것은 그들의 삶과 앎의 세계를 보다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주기 위함이며, 나아가 자신들의 삶터와 나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길러주기 위함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가르쳐져야 하는 지리내용의 성격은 개념적이고, 사실적이며, 기능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의 몸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지각적인 대상들을 중심으로 지리교육내용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자들의 몸을 통해서 느껴지는 지리적 경험은 어떤면에서는 산만하고 파편적인 경험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지만, 지각적인 대상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과정속에서 산만한 지리적 경험은 완성된 '하나의 경험(an experience)'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와같은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완성된 지리적 경험은 일상생활과 공간이 나와 어떤 관계속에 놓여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Dewey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같은 자신들의 삶터와의 관계속에서 형성되는 '하나의 경험'은 미적인 특성을 갖는다. 어떠한 경험이든지 그것이 하나의 경험인 한 그것은 미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지적경험이나 실천적인 경험 모두가 하나의 경험인 한 그것은 곧 미적인 경험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하나의 경험으로서의 미적 경험은 경험의 한 종류가 아니라, 경험이 발생하는 방식(mode)을 가리킨다.

학습자들의 몸을 통한 지리적 경험이 하나의 경험일 때 그와 같은 경험 역시도 미적인 특징을 갖는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와같은 학습자들의 하나의 경험이 갖고있는 미적인 특성은 초등학교 지리교육 내용의 성격을 규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사실적이고 기능적인 내용중심의 초등학교 지리교육에서 벗어나 의미중심적이고 실존적인 측면의 지리교육을 지향할 수 있게 해 준다.

미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하는 초등학교 지리교육 내용의 성격은 그것이 공간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름다움의 문제를 개념적이고 관념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경관 등을 중심으로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초등학교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리교육 내용으

로서의 적합성을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름다움의 문제를 중심으로, 그 가운데서도 특히 지각적인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경관'을 대상으로 그것이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의 문제에 천착하면서 초등지리교육에 줄 수 있는 의미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미학에서의 미적 인식의 변화와 미적 대상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와 같은 변화된 미학적 측면을 반영하고 있는 Bourassa의 경관미학과 Berleant의 참여미학과 그것의 교육적인 의미를 살펴보겠다. 나아가 그와 같은 아름다움에 대한 논의가 가지는 초등학교 지리교육에 줄 수 있는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겠다.

II. 미적 인식의 변화와 미적 대상의 확대

전통미학과 현대미학의 가장 커다란 차이 가운데 하나는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주체의 관점이 변화하였고, 그것과 더불어서 미적 대상 자체가 예술에 국한되지 않고, 일상적인 삶으로까지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미적 인식의 차원에서 보면 전통미학에서는 미의 생산자와 감상자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주된 흐름이었다고 한다면, 현대미학에서는 미의 생산자와 감상자를 동일자로 본다. 이같은 미적 인식의 변화는 미적 대상을 예술적인 측면에만 국한하던 것에서 벗어나 일상적인 삶과의 관계속에서 보다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게됨으로써 미적 대상이 크게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같은 미적 주체의 문제와 미적 대상의 확대는 아름다움의 문제를 대안적 교육내용으로 삼을 수 있는 근본적 토대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미적 주체의 관점: '바라봄'의 미에서 '참여'의 미로

아름다움의 문제는 적어도 이성중심적인 서구사회에서는 부수적인 활동으로 간주되었다. 18세기에 Baumgarten이 '아에스테시스(aesthesis)'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서 윤리학과 대별되는 감성적 인식의 학문으로서 미학을 지칭하기 이전까지 아름다움의 문제는 중요한 탐구의 영역이 아니었다. '아에스테시스'라는 용어가 인간들의 감각적 인식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구사회에서 타자화된 영역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Baumgarten이 '미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새로운 탐구영역을 일차적인 감각이나 감각지각에 대한 탐구의 학문으로 규정짓게 되었고 아름다움의 문제는 새로운 학문의 장이 되었다. 그리고 아름다움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같은 감각 지각적 요소들을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기게 되었다(Berleant, 1992, 193).

전통미학에서 미적 감각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 가운데 가장 으뜸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시각과 청각이었다. 시각과 청각을 미적 감각이라고 믿는 고전적인 주장은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나타난다. 그리스 사상의 지배적인 전통이 이성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시각과 청각은 이성의 발휘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는 감각이라는 이유로 최고의 감각으로 받아들여졌다. 육체적인 접촉이 없이도 시각과 청각은 멀리 있는 대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서정원, 2002, 6).

현대미학에 오면서 이같은 전통적인 생각들은 '심리적 거리(psychical distance)'와 '무관심성(disinterestedness)'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미학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처음으로 미학을 체계화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Kant조차도 미적 경험의 영역을 대상의 지각가능한 형식적 구조로 한정짓고, 그것을 감상하기 위한 심리적 조건으로 '무관심성(disinterestedness)'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관조자의 입장이 전제되어 있는 미적 태도론을 제시한다. 무관심성의 입장에서는 어떤 종류의 실제적인 관심들이 배제된 무사공평한 마음의 눈으로 파악되는 형식 구조적 패턴만이 참된 미적 경험의 영역인 것이다. Kant가 미적 영역을 이같은 방식으로 한정지은 까닭은 우리의 지각이 일상적인 삶의 다양한 관심사와 일시적인 감정적 동요 등에 의해 방해받기 일쑤이기 때문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판단과의 구별을 짓기 위함이었다(김혜련, 1998, 35). 그리고 이때부터 전통적인 미학에서 아름다움에 대한 향유는 대체로 어떤 거리가 전제되었을 때에만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무관심적인 관조의 입장에서 경험되는 아름다움은 어느 정도의 거리가 전제되어 있는 대상화된 아름다움이며, 아름다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체와

객체사이에 적절한 물리적·심리적 거리를 필요로 하게 된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거리를 충족시킨 상태에서만이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각이라는 감각 요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무관심성에 근거한 관조론적인 미적 태도론은 근대적 예술의 위상을 확립시키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지만, 인간을 예술로부터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인간으로부터 고립된 예술은 인간들의 삶을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술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예술을 위한 예술의 지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전통미학에서의 관조론적인 입장에 대해 Berleant는 '참여(engaged participation)'가 미적 경험의 실재를 구성한다는 대안적인 미적 인식을 제시한다. 그는 최근의 발전된 예술상들은 무관심적으로 그것들을 관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행위하고 반응하게 한다고 이야기 한다. 따라서 현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새로운 예술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미학 개념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새로운 미학 개념이 바로 '참여'의 미학이라는 것이다. Berleant가 주장하는 참여의 미학이 갖는 가장 커다란 특징은 예술 행위와 일상적인 삶의 문제를 연속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각에 있어서도 이같은 예술과 일상적인 삶의 연속성은 거리와 관조라는 전통적 설명을 거부하고, 예술대상에의 참여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Berleant, 1992, 60-61).

그러나 이같은 Berleant의 미학개념은 미학의 문제를 일상적인 삶의 문제로까지 확대시킴으로써 미학만이 갖는 고유성의 문제에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음에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크다. 그것은 그가 일상적인 삶의 토대로서의 '환경(어떤 의미로는 경관)'과 관련하여 아름다움의 문제를 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상적인 삶의 터전으로서의 '미적 장'은 예술을 가능하게 하는 '삶의 환경'이며, 그가 참여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논거로 삼고 있는 환경미술, 대지예술 등이 일상세계의 경험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미적 토대로서의 환경'이다(조정송, 배정한, 1994, 239). 결국 Berleant의 참여의 미학은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속에서 파생되어지는 많은 아름다움의 문제를 관조적/방관자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Berleant가 제시하는 경관개념은 이같은 그의 사고를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는 무관심론적 관조론이 낳은 경관을 '파노라마 경관'이라고 부른다(Berleant, 1991, 배정한, 1998에서 재인용). 파노라마 경관은 경관의 경험에 있어서 물리적 거리와 폭을 필요로 한다. 이런 경우 관찰자(주체)와 경관(객체) 사이의 분리가 당연히 전제되며 시각적 경험이 우세하게 된다. 즉 파노라마 경관은 시각적으로만 열려있고 신체적 접근은 불가능하다. 그 사례로서 관공서의 건물이나 거대한 스케일의 기념 건축물 등에서 우리는 파노라마 경관의 특징을 쉽게 볼 수 있는 것이다(배정한 1998).

2. 미적 대상의 관점: 예술적 경계를 넘어 일상으로

Baumgarten에 의해 미학이라는 학문영역이 새롭게 구성되었을 때 감각에 의존하는 학문으로서의 미학은 자연적인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그당시 많은 예술인들이 자연에 대한 모방을 통한 기쁨의 추구가 일반적인 경향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이 미학의 논의대상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미학을 내용적으로 완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Kant의 경우에도 자연을 예술의 모범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19세기에 이르러 Hegel에 오면서는 예술미가 미학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그로 인해 미학초기부터 있어왔던 자연미(환경미)에 대한 관심은 헤겔을 지나면서부터는 미학의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지기 시작한다(김문환, 1994). 전통미학에서 아름다움의 문제는 단지 예술의 문제로 국한되어 버린 것이다.

그러나 20세기 전반에 들어오면서 미적 대상이 예술에만 국한되는 것은 무관심성에 기초한 관조론적인 미적태도론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미적 대상을 예술에만 한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대안적인 미적 대상의 탐색을 추구한다. 새로운 미적 대상의 탐색은 미적 인식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어서 관조에서 참여로의 미적 인식의 변화는 미적 대상의 범주를, 미학의 영역속에서 감추어져 있었던 자연미의 부활을 포함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로까지 확대시킨다. 이같은 미적 인식의 변화에 기초해서 보다 폭넓은 미적 대상의

범주를 구성하는 미적 영역을 '환경미학'이라는 범주로 규정할 수 있으며(조정송, 배정한, 1994), 이때 환경은 '일상생활로서의 환경'이며, '경관으로서의 환경'인 것이다.

Berleant는 인간의 삶의 조건으로서 환경은 본래 미적인 것이라는 어떤 씨앗을 그 자체내에 품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속에서도 미적인 요소들이 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일상생활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경험은 미적인 형식과 특질을 수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때 환경은 단지 자연환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미적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하나의 맥락이며 상황으로 존재한다고 본다(Berleant, 1992, 156).

그가 생각하기에 인간들은 주변 환경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들만의 특색을 만들어 간다. 그리고 그와같은 과정속에서 만들어진 특색은 단지 특색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활동패턴에 영향을 주며, 잘 파악되지 않는 미묘한 방식으로 기질과 태도들을 물들이게 된다.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들이 친숙하게 생각하는 대상들은(경관들은) 너무나 친숙하기 때문에 잘 눈에 띄지 않지만 그것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곧 우리들이 우리들의 일상을 구성하는 아름다운 요소들을 만들어내지만 우리들이 만들어낸 아름다움들이 다시 우리들을 만들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Berleant(이수진 역), 1995, 418).[1]

Berleant의 참여개념에 근거한 환경(경관)미학적인 관점에서 경관은 단지 시각적으로 인지되는 이미지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에 의하면 경관은 우리가 직접 접해있는 한 장소에 대한 특수한 경험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경관은 하나의 개별적인 환경으로서 환경이 지니고 있는 특색들을 독특한 방식으로 구현하고 있는 것이어서 '살아진 환경(a lived environment)'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지역에 대해 이해하거나 학습을 한다고 할 때 어떤 지역이나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개별화 한 경관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Berleant(이수진 역), 1995).

전통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들은 단지 미적 인식 주체를 관조자의 입장으로, 아름다움의 문제를 예술로 환원시킴으로써 많은 한계들을 갖고 있었다. 결국 이같은 전통미학의 관점은 관조자의 입장에서 참여자의 입장으로, 예술에 국한되었던 미적 대상의 문제를 일상적인 삶의 문제로 확대시키고 있다. 이같은 미적 인식의 변화와 미적 대상의 확대는 그동안의 미학적 논의속에서 소외되었던 인간을 다시 복귀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으며, 그로인해 인간의 경험들이 갖고 있는 내재된 특성으로서 미적 경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III. 사회·문화적 환경으로서의 경관미학과 지리교육적 의미

미적 인식과 미적 대상의 변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현대 미학적 관점속에서 등장하는 경관미학의 문제를 중심으로 미적 인식과 미적 대상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경관미학이 갖는 이같은 지리교육적인 의미를 살펴보자.

1. 경관미학의 패러다임 전환: '생물학적' 경관미학에서 '사회·문화적' 경관미학으로[2]

경관미학적인 논의는 크게 두가지의 관점으로 정리된다. 하나는 생물학적인 결정론에 근거한 Appleton의 논의이고, 다른 하나는 비고츠키의 관점을 받아들여 사회·문화적인 맥락속에서 경관미학을 논하는 Bourassa의 관점이다. 각각의 관점에 대해 살펴보자.

경관미학에 대한 첫 번째 관점은 Appleton이 지리학의 분야에서 경관에 대한 아름다움의 문제와 관련된 논의들이 갖고 있는 이론적 공백을 지적하면서 대두되었다(Appleton, 1975, 123). 그는 경관에 대한 경험이란 유쾌하고 만족스러운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출발하며, 그와같은 경험의 토대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그는 '적지선호이론(habitat theory)'이라고 명명한다. 인간의 경관에 대한 미적 반응은 누구나 선천적인 것이며, 생존을 위한 생물학적인 욕구로부터 발생한다. 인류 역사속에서도 인간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환경에 대해 예민한 감성을 갖는 것이 필요불가결 했다. 환경에 대한 예민한 감성들은 인류가 발달함에 따라 조금씩 희석되어 갔지만, 인류의 행태적 특성으로서의 감성 그 자

체는 유전적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Appleton은 주장한다(배정한 · 조정송, 1995, 9).

그러나 적지선호이론만으로는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진 경관의 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를 단순화시켜 제시한 이론이 '조망-은신 이론(prospect-refuge theory)' 이다. 이 이론은 유쾌한 미적 경험을 적지선호이론의 관점에서 해명하고자 시도한 것으로 그 기본적인 사고는 자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으면서(은신) 다른 사람들을 많이 보고자 하는(조망)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경관을 경험할 때에는 자신을 숨기고 경관을 관조하려는 입장을 취하는 행동패턴을 설명하고자 하는 '숨기와 찾기의 미학(hide and seek aesthetics)' 인 것이다(Bunksé, 1977, 150).

조망-은신이라는 개념이외에 그의 이론을 구성하는 또 다른 개념이 '위험(hazard)' 이다. 인간에게는 선천적으로 삶을 위협하는 것으로부터 우월한 지위(이것은 조망이라고 봄)를 제공하고, 보호(이것을 은신으로 생각함)를 보장해주는 경관의 특징들을 구분함으로써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배정한 · 조정송, 1995, 10). 이같은 세가지의 개념에 기초해서 그는 경관의 미를 즐거움에 연결시키고자 한다.

Appleton은 경관에 대한 아름다움을 즐거움의 문제와 연결시키고 있지만, 모든 즐거움이 다 아름다움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심적인 조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Appleton은 미적 태도론의 문제와 관련지어 설명한다. 미적 태도는 아름다움을 느끼는 특별한 지각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는 자신의 조망-은신 이론이 미적 경험의 특별한 지각방식일 수 있으며, 그와같은 지각은 바로 생물학적인 욕구의 만족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미적 태도론에 대한 비판의 입장은 미적 태도론에서 견지하는 아름다움은 실제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아름다움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허구에 대한 심리적인 분석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즉 미적 대상이 미적 태도의 대상으로 탈바꿈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같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경관이라는 미적 대상은 경관에 대한 특수한 심리적 대상이 되어버리고, 실제의 경관은 논의대상에서 자취를 감춰버리게 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배정한 · 조정송, 1995, 11-12).

이러한 Appleton의 경관미학이 갖는 문제점은 첫째, 조망-은신의 입장에서 볼 때 경관은 우리의 자아와는 심적인 거리를 갖고 있는 관조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 경관에 대한 우리의 미적 경험은 경관을 바라보는 사람이 어떤 심리적인 거리를 갖고 바라본 결과로서 형성된 이미지에 대한 경험에 불과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Appleton이 가정하고 있는 미적인 즐거움이라는 것에 대한 검증을 결여하고 있다. 미적인 즐거움이라는 것이 생물적인 욕구의 만족에 감성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라는 기본적인 가정은 어디에서도 검증되지 않고 있다. 셋째, 인간은 경관의 특정요소를 인간의 자기보존을 위한 필수적인 조망과 은신의 요소로서 보기 때문에 경관에 반응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경관의 다른 요소들을 왜 무시했는가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배정한 · 조정송, 1995, 12-13). 결국 이같은 문제점을 지닌 애플턴의 이론은 많은 지리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는다(Bunks, 1977; Bergman, 1978; Tuan, 1977).

경관미학과 관련된 두 번째 관점은 Bourassa에 의해 제기된다. 그는 지리학자들과 마찬가지로 Appleton의 경관미학적인 관점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경관미학적인 연구를 시작한다. 그의 연구는 대략 두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배정한 · 조정송, 1995, 14-16). 첫째는 미적 대상으로서 '경관' 이 지니고 있는 여러 관점을 다룬다. 일정정도 떨어져서 보는 경치로서의 경관을 파악하는 입장은 실존적 내부자의 관점이 배제된 외부자의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외부자의 시각이 우선시 되고 시각적인 경험이 강조됨으로써 제대로 된 내부자들의 미적 경험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는 전통미학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자연미를 부활시키고, 참여의 미를 주창하는 Berleant의 환경미학적인 입장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이같은 입장에서 그는 경관은 예술과 인공물과 자연 모두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경관은 일상적 삶의 장이라는 관점에서, 경관미학은 일상적 경험의 미학임을 주장한다(Bourassa, 1991, 8-21).

둘째로 그는 '미적경험' 의 본질에 대한 접근을 시

도한다. 그는 Santayana, Kant, Dewey 등의 이론을 비교하면서 우선적으로 Santayana가 제시하는 감각적(sensory), 형식적(formal), 상징적(symbolic) 차원에서의 미적 경험의 분석에 주목한다. 하지만 그는 이같은 형식적이고 감각인 특성으로 경관의 아름다움을 파악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Bourassa는 경관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 가운데서 형식적이고 감각적인 차원의 아름다움이 생물학적인 차원의 아름다움이라고 한다면, 상징적인 차원의 아름다움은 문화적, 개인적 토대를 갖는 아름다움의 차원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같은 경관에 대한 미적 경험의 세가지 모드는 현상학적으로 규명된 환경(Umwelt), 공동체세계(Mitwelt), 자체세계(Eigenwelt)라는 세가지 실존적 모드와 일치되며, 이들은 곧 미적 경험의 세가지 모드와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Bourassa, 1990, 787-812).

나아가 그는 경관을 관자의 입장—외부자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는 Kant를 중심으로 한 '무관심성'의 미적 태도를 비판하고, Dewey가 주창하고 있는 경관에 대한 실존적/내부자 관점이 들어가 있는 '참여적' 입장을 지지한다.[3] Bourassa는 미적 취미와 실천이성을 분리하는 칸트류의 입장이 미적 대상으로서의 경관을 연구하는데 적합하지 못함을 지적한다. 왜냐하면, 경관은 자연과 인공물과 예술의 복합체이기 때문에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도덕적·실제적 가치는 미적 가치와 분리되어서 경험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곧 미적 경험은 미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 도덕적인 것과 분리되지 않은 일상적 경험의 완성으로서의 '하나의 경험(an experience)'을 주장하는 Dewey와 견해를 같이한다. Bourassa에게 있어 경관의 미적 경험은 일상적인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외부자적인 관점을 배제하고 실존적 내부자의 관점에서 경관개념을 파악하는 것이며, 미적 가치는 그 밖의 가치들과 분리시키지 않고 경관의 미적경험을 파악할 수 있는 전제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Appleton과 Bourassa의 이론은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경관미학의 정초를 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구성하고 있는 경관은 중요한 미적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응되는 이론적, 미학적 연구가 부족한 현실을 극복하고 나름대로의 체계적인 논증과정과 접근방법을 선보이고 있다는 점에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실증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경관의 아름다움에 대한 철학적/본질적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요약하면, Appleton에 의해 제기되었던 생물학적이고, 관조론적인 관점에서 시각적으로 규정된 환경으로서 경관을 규정짓고, 그에 대한 미적 경험도 외부자적인 관점에서 논의하였던 경관미학이, Bourassa에게 오면서는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경관을 이해하게 되고, 나아가 참여론적인 차원에서 내부자들의 실존적 관점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관미학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Bourassa의 경관미학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일상적인 경험의 미학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관조론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Appleton의 관점을 바탕으로 지리교육 내용을 구성하고자 할 때 학습자를 소외시키는 경우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그의 이론이 너무나 생물학적인 결정론에 빠져있어 인간들의 사회·문화적인 맥락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있다. 따라서 경관미학을 중심으로 지리교육 내용을 구성하고자 할 때 학습자들의 '참여'를 중시여기면서 일상적 삶의 환경으로 경관을 정의하고 경관미학을 일상적 삶의 미학으로 규정짓고 있는 Bourassa와 Berleant의 관점을 중심으로 경관(환경)미학속에 담겨있는 교육적 의미를 추출해내고자 한다.

2. 경관미학이 갖는 지리교육적 의미

Bourassa에게 '경관(landscape)'은 일상적인 삶의 장이어서 그의 경관미학은 일상적인 경험의 미학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Berleant도 '경관'은 '미적 장으로서의 환경'에 대해 알게 해주는 중요한 지표이며, 우리의 풍토와 그 풍토속에서 형성된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게 해주는 의미있는 기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경관은 과거에 그 환경속에서 거주하였던 사람들의 '살았던 경험(a lived experience)'과 현재 그 환경속에서 삶을 살고있는 사람들의 '살고 있는 경험(a living experience)'을 누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palimpsest이며, palimpsest로서의 경관은 그 거주자들의 특색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지표인 동시에 가치관의 보고인 것이다. 나아가 환경과 경관은 단지 우리의 물리적인 주변상황만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우

리의 지각, 환경과 함께 하는 우리의 생각들과 활동들 혹은 이러한 계기들을 재구성하는 사회와 문화일 뿐만아니라 이것들 모두가 하나로 합쳐지는 '완전한 총체(integral whole)'이며, 사람들과 장소의 상호의존적인 결합들인 것이다(Berleant(이수진 역), 1995, 422).

총체적인 인간경험의 장으로서의 미적 장은 어떤 일상경험의 영역으로부터 미적 경험의 존재론적 위치를 구하고 있으며, 이것은 곧 Dewey의 경험론과 견해를 같이하기도 한다. Dewey철학에서 경험은 가장 중요한 개념이지만, 그의 방대한 저술속에 들어있는 경험개념은 어떤 하나의 특성을 지닌 것으로 파악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Dewey의 후기 철학에서 경험은 미적 경험으로서의 특징을 갖는다(정순복, 1990; 정순복 1991). 그리고 이같은 그의 입장은 Berleant의 참여미학의 이론적 틀을 제공해주기도 한다. Dewey의 미적 경험은 인간의 경험을 구분하여 어떤 것을 미적인 것이라고 상정하고, 그것을 예술과 관계시키는 미학적인 입장에 반대한다(조정송 · 황기원 · 박재길, 1998, 70-71). 그에게 있어 인간들의 경험은 세분된 무엇으로 쪼개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총체로서 경험인 것이고, 다만 경험의 양상(mode)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Dewey는 '경험'이란 유기체로서의 인간과 그를 둘러싼 환경이 상호관련을 맺는 적응 과정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경험들 대부분은 산만하고 분산된 경험인 것이지만 그런 경험과는 달리 경험된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완성된 형태의 경험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을 그는 '하나의 경험(an experience)' 또는 '완결된 경험(consummatory experience)'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러한 때에만 경험이 내면적으로 통합되고 경험 전체의 흐름속에서 다른 여러 경험들을 구분하게 되며, 경험들 각각이 고유한 개성적 특질과 자족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또한 이같은 '하나의 경험'은 지적, 미적, 행위적 측면 가운데 어느 한 측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들 모든 경험의 양상(mode)들이 통합되어 나타나는 경험인 것이다(박철홍, 1995, 81-82). 따라서 어떤 형태이든지 '하나의 경험'인 한 미적인 특질을 갖고 있으므로 지적 경험과 실천적 경험도 '하나의 경험'인 한 미적인 특질을 갖는다.

Dewey의 미적 경험이 다른 경험의 양상들과 구별될 수 있는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지각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경험을 통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여기서 지각한다는 것은 수동적인 관조상태가 아니라 지각자의 '지향성(intentionality)'에 기초한 지각하는 사람의 능동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미학에서의 지각적인 요소와는 다르다. 그리고 이같은 지향성에 기초해서 형성되는 미적 경험은 예술작품과 지각하는 사람을 구분하고 양자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정적인 미적 관조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된 양상으로서의 일상적인 경험이 일어나는 '미적 장(aesthetics field)'속에서의 역동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함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조정송 · 배정환, 1994, 232-234).

따라서 Bourassa와 Berleant의 경관미학이 교육적으로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아름다움의 문제를 일상적인 삶과의 연속성속에서 다룸으로써, 다양한 미적 경험과 미적 대상을 상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그동안의 지리학자들의 연구성과에 의존하는 지리교육의 스코프를 확대시켜줌으로써 다양한 콘텐츠 개발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나아가 새로운 콘텐츠가 단순한 또 다른 지리학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을 단순 · 합산적으로 지리교육내용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의 삶과 앎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준다.

둘째, 경관이라는 요소가 관념적/개념적 접근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지각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갈 수 있는 구체적인 표상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경관을 단지 물리적인 특성에 근거해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경관을 매개로 엮어져 있는 의미들을 두껍게 읽어냄으로써 '지리적 문해력(geographical literacy)'을 키워줄 수 있다는 점이다. 공간과 인간들의 삶과의 관계를 추상적으로 요약된 지식에 근거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일상적인 삶의 공간속에 퍼져있는 경관을 통해서 공간과 인간들의 삶을, 우리들 공간의 풍토성을 이해하도록 해준다.

셋째, 경관의 지향성에 근거한 지각은 바로 학습자들의 몸에 근거한 지리교육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우리가 학습자들의 지리적 경험을 중심으로 지리교육내용을 구성해야 한다고 할 때 학습자들의 지리적 경험은 그들의 삶속에 내재되어 있는 지리적 경험일

때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어른들의 지리적 경험을 바탕으로 '이식된' 지리적 경험을 학습자들에게 교육할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의 몸을 통해서 그들의 몸속에 퇴적되어 있는 지리적 경험으로부터 지리교육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지리교육 전반과 관련된 이러한 경관미학적인 관점은 초등학교 지리교육 내용의 성격을 규정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초등학교의 경우에 중·고등학교에 비해 학습자들에게 있어 지각적이고, 조작적인 대상들이 훨씬 더 교육적인 의미를 줄 수 있다. 초등학교 지리교육에 줄 수 있는 의미들에 대해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IV. 초등학교 지리교육에서 아름다움이 갖는 의미

아름다움은 대략 두 가지의 측면에서 초등학교 지리교육에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첫째, '영지리교육과정'의 중요성은 타자화되었던 삶터를 정상화된 나의 삶터로 인식하게 준다. 또한 일상속에 익명적으로 남아있었던 지리적 요소들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한다. 둘째, 일상적인 삶속에서 퍼져있었던 낯익은 내용들을 낯설게 만들어줌으로써 학습자들의 몸에 퇴적되어 있는 지리적 경험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나아가서는 나와 나를 둘러싸고있는 공간과의 관계속에서 나에 대한 실존적 이해를 가능하게 해준다. 각각의 관점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1. '영지리교육내용(null contents in geography education)'으로서의 아름다움

'영지리교육내용'은 Eisner가 주장하는 '영교육과정(null curriculum)'을 응용하여 연구자가 제시한 개념이다. 영교육과정은 학교교육속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교과목들을 의미한다(Eisner, 1979, pp.83-92). 하지만 Eisner가 지향하는 영교육과정은 포괄적인 교육체제 전반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의 생각을 응용하여 '영지리교육내용'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지리교육내용'은 지리교육에서 교육내용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들로서, 초등학교 지리교육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속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리교육내용을 의미한다. 하지만 영지리교육내용을 제시한다는 것이 초등학교 지리내용속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다양한 지리교육 내용을 합산적으로 생각하는 기계적인 개념은 아니다.

영지리교육내용은 오늘날과 같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을 때, 초등학교 지리교육에서도 삶터와 인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이 중요해 진다. 하지만 기존의 지리교육의 내용만으로는 그와같은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지리교육과정 속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교육내용을 새롭게 제시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 제공될 수 있는 지리교육내용을 의미한다.

영지리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는 교과목들 내지는 내용요소들은 다양할 수 있다. 그 가운데서도 아름다움의 문제가 중요한 것은 학습자들의 삶과 앎의 문제를 보다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학자들의 시각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거리를 갖고 명제적으로 제시된 지식을 통해서 인식해야 했던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의 시각으로, 자신들의 몸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구체적이고 지각적인 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아름다움의 문제는 그동안 지리학자들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터를 인식함으로써 타자화되었던 삶터를, 나의 몸을 통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면서 비로소 내 삶속에서 정상화 시켜준다. 하지만 지금까지 내 삶터가 타자화되었던 것은 지리학자들의 시각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지리학자들의 경험은 개개의 공간속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식된 경험에 불과하여, 개개 인간들이 자신들의 공간속에서 거주하면서 형성시킨 지리적 경험 모두를 대변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경험을 제시해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정상화된 자신들의 삶터는 나와의 의미연관속에서 새롭게 나를 규정하게 되며, 새롭게 규정된 나는 내 삶터에 대해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것은 나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과의 지속적인 경험의 과정이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과정속에서 불완전한 경험이 하

나의 완성된 경험으로서 나아가게 되며, '하나의 경험'이 될 때 그 경험의 성격은 미적인 특징을 갖게 되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영지리교육과정으로 생각하는 것은 단지 내용합산적인 생각은 아닌 것이다.

참여론적인 맥락속에서 바라본 경관은 학습자가 나고 자란 그곳의 풍토와 역사, 그리고 현재 우리들의 삶과의 관계속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는 중요한 대상이다. 그것은 기존의 초등학교 지리내용들이 갖고 있었던 기능적이고 사실적인 지식을 중심으로 하였던 내용의 성격을 의미중심의 지리적 경험으로 치환시킴으로써 학습자들은 나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삶터와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와같은 기회의 마련은 지리학습을 단지 암기위주로 진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관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에 도달하기위한 과정속에서 학습자들은 다양한 지리적 상상력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자신들의 삶터에 대한 이해를 위한 지리적 상상력이 아니라 다른 공간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해로까지 전이될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학습자들의 일상적인 삶속에서 너무나 낯익은 대상들이어서 그 중요성을 잃고 살아가는 익명적(anonymous)인 경관들이 지닌 아름다움은 그동안의 사실적이고 기능중심의 초등학교 지리교육내용의 성격을 변화시켜준다. 그리고 그와 같은 변화는 지리학자들의 연구성과에 의존한 지리학습에서는 타자화되었던 학습자들의 삶터가 지각적 요소를 중심으로 하는 아름다움의 문제에 기초함으로써 정상화된 삶터로 새롭게 인식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해준다.

2. '낯익은' 내용을 '낯설게' 만들어주는 지리교육

경관이 갖는 아름다움을 중심으로 한 초등학교 지리교육의 내용구성은 초등학교 지리내용의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다. 낯익은 내용들을 낯설게 해줌으로써 일상적인 삶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 동안의 초등학교 지리내용들이 주로 지식의 구조를 중심으로 번역의 수준을 학습자 수준에 맞추고, 일상의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중·고등학교와 지리내용의 성격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표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일상의 경험들이 초등학교 지리내용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부터 중·고등학교까지의 지리내용은 계속적으로 중복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은 지리학자들의 지리적 경험을 학습자들의 지리적 경험으로 치환시킴으로써 빚어진 결과이다. 지리학자들 내지는 어른들은 자신들의 지리적 경험이 곧 학습자들의 지리적 경험과 유사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경험을 학습자들에게 그대로 가르쳐도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와 같은 생각이 일면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체로 지리학자들과 어른들의 지리적 경험은 학습자들에게는 분명 낯설은 것이지만, 학습자들은 지리적으로 사고하고 인식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의 지리적 경험과는 거리가 있는 익숙하지 않은 내용들을 친숙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교육받는다.

그와같은 지리학습의 과정속에서 학습자들은 지리학습을 지루하고 단편적이며, 무조건 암기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낯설은 지리학자들의 지리적 경험은 초등학교 지리교육에서 학습자들이 반드시 배우고 익혀야 할 '정상화된(Normalized)' 내용이고, 학습자들에게 낯익은 학습자들의 지리적 경험은 '타자화된(Otherized)' 내용으로 여겨지게 되면서 학습자들은 자신들의 몸에 퇴적되어 있는 자신들의 지리적 경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다. 그리고 결국 학습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지리적 경험을 마치 자신의 경험으로 생각해야 하며, 자신들의 일상적인 공간소비 행위가 자신들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거의 생각해볼 수 없게 되고, 결국은 그와 같은 지리학습의 과정속에서 지리라는 과목도 점차 학습자들에게 타자화 되어가고 있다.

이같은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적인 관점이 학습자들의 일상적인 삶에 근거해서 지리교육내용을 새롭게 구성해 보자는 것이다. 삶과 앎의 세계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줌으로써 학습자들의 지리적 경험을 더 이상 '타자화'시키지 말고, '정상화'시켜줌으로써 삶터와 우리들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자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일상생활의 어떤 요소들을 지리교육내용으로 선정할 것인가. 그와 같은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름다움에 기초한 지리교육의 내용 구성이다.

아름다움에 대한 논의들은 일상생활속에 지리적

경험을 묶어줄 수 있는 요소이다. 일상적인 삶의 환경속에서는 본래 미적인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같은 맥락속에서 탄생한 경관미학적인 관점은 단지 경관의 시각적인 측면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일상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미적 대상으로서의 경관은 그 경관이 지니고 있는 여러겹의 의미들을 이해해감으로써 점점 낯설은 내용으로 인식되게되고, 학습자들은 그 과정속에서 나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리고 그와같은 과정은 나와 나를 둘러싼 공간과의 관계속에서 형성된 학습자들의 정체성과 실존적 의미를 이해하게 해준다. '공간내존재(being-in-the-world)'로서 인간은 결국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낯익은 공간과의 관계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실존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지만, 다만 익숙해짐으로써 그 의미를 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우리의 현실속에서 주변의 다른 장소보다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어낸 공간은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하면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쉽게 관찰되어진다. 다른 공간보다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것은 단순한 미적인 차원의 승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적으로 다른 곳보다 아름다운 새로운 경관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은 그와 같은 경관이 그 지역사람들에게 의미있는 곳임을 시사한다. 일상속에서 우리가 다른 날보다 조금 더 예쁘게 치장을 하거나, 멋있는 넥타이를 고르는 날은 분명 일상적인 날들과는 다른 개개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중요한 날이듯이, 공간속에서 다른 곳보다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어진 경관은 적어도 그 지역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공간인 것이다. 마치 청주사람들에게 '성안길'은 청주성을 대표해주는 공간이듯이 말이다.

V. 결 론

아름다움의 문제는 지리학에서 뿐만아니라 지리교육에서도 중요한 연구대상이다. 특히 경관을 대상으로 하는 아름다움의 문제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아름다움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지각적이고 실제적인 아름다움의 차원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실제적인 아름다움의 차원은 초등학교에서 지리교육 내용을 구성하고자 할 때 아이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소재가 된다.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감각기관들을 이용해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Appleton에게서 처음으로 제시되었던 경관미학적인 사고가 형식적이고 물리적이며, 관조론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 학습자들의 삶과의 연결이 어려웠었던데 비해, Bourassa가 제시하는 경관미학적인 관점은 아름다움을 생산해낸 내부자의 실존적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중심으로, 나아가 실존적인 관점으로 초등학교 지리교육이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나아가 이같은 경관미학적인 아름다움의 문제는 낯설은 지리적 경험을 낯익게 만드는 그동안의 지리교육에서 벗어나 낯익을 내용들을 낯설게 해줌으로써 학습자들의 삶터와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게 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실존적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지리교육을 가능하게 해준다. 또한 이같은 맥락속에서 경관이 지닌 아름다움의 문제는 영지리교육내용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며, 그와같은 영지리교육내용으로서의 아름다움은 기능적이고 사실중심의 지리교육을 지양하고, 의미중심의 초등지리교육이 가능하게 해준다. 나아가 중·고등학교와 구별되는 초등학교만의 지리교육내용을 제시해준다. 또한 지리학자들의 경험에 의존했을 때 타자화되었던 나의 삶터가 나의 지각적 요소를 이용한 아름다움의 문제에 기초했을 때 정상화된 나의 삶터로서 의미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한가지 보다 분명하게 하지 못한 것은 학습자들의 지리적 경험을 미적경험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지리적 경험의 성격이 여러 가지일 수 있으며, 그 가운데 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차후의 연구주제로 삼고자 한다.

註

1) 이같은 환경 개념은 Berleant의 개념으로는 '미적장(aesthetic field)'이다. 미적장의 개념은 그가 전통미학과 결별을 가져오게 한 중요한 개념으로 Dewey 미학사상의 영향을 감지할 수 있는 개념이기도 하다. Dewey에게 있

어서 하나의 경험은 주변의 환경과의 지속적인 교호작용(transaction)을 통해 가능하게 되는 것처럼, 참여미학을 통해 미적 대상을 일상생활과의 연속성을 강조하면서 사용한 개념인 것이다. 미적 장은 특별한 경험과 태도를 요구하는 대상이 아니라 총체적인 삶의 '상황'인 것이다.

2) 경관미학과 관련된 논의들은 다음의 글을 참고로 하여 수정/보완하였다. 박승규(1998), "경관미학의 지리교육적 의미", 『교육과학연구』, 제12집, 청주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pp.185-204.

3) Bourassa가 이같은 참여미학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은 Berleant로부터의 영향이다. Berleant의 경우에 칸트류의 '무관심성'의 미학은 미적경험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관자와 대상이 일체가 되는 '미적 장'에의 '참여'가 미적경험의 전제임을 주장한다.

참고문헌

김문환, 1994, "환경미학의 이론적 과제: 자연미를 중심으로", 철학과 현실, 22, 서울: 철학과 현실사.

남호엽, 2001, "초등학교 지리교육과정의 쟁점과 대안의 모색", 한국지리교육과정의 개선 방향,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pp.13-26.

박철홍, 1995, "듀이의 '하나의 경험'에 비추어 본 교육적 경험의 성격:수단으로서의 지식과 내재적 가치의의미", 교육철학, 13, 한국교육철학회, pp.81-82.

배정한, 조정송, 1995, "Appleton과 Bourassa의"경관미학"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조경학회지, 23(1), 한국조경학회, p.9.

배정한, 1998, 조경에 대한 환경미학적 접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정원, 2002, '참여'(參與, Engagement)개념의 미학적 의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순복, 1990, "존 듀이(John Dewey)의 철학에 있어서 질성(Qualitativeness)과 예술의 문제", 미학, 15, 113-148.

정순복, 1991, "철학과 예술의 등식성의 문제-존듀이의 후기 철학사상을 중심으로-", 미학, 16, 129-151.

정순복, 2001, "존 듀이의 예술사상과 일상적 삶의 예술화", 미학, 31, 한국미학회.

조정송, 황기원, 박재길, 1998, "한국 도시경관의 새로운 계획 파라다임", 한국조경학회지, 25(4), 70-71.

Berleant, A., 이수진(역), 1995, "미학과 환경", 미학, 20, 한국미학회, 415-435.

Appleton, J., 1975, Landscape evaluation:the theoretical vacuum, *Transactions of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66, 123.

Berleant, A., 1992, *The Aesthetics of Environment*, Philadelphia: Temple Univ. Press.

Berleant, A., 1997, *Living in the Landscape: Towards an Aesthetics of Environment*, Lawrance KS: Univ. Press of Kansas.

Bergman, E.F., 1978, Reviewed of 'The Experience of Landscape' by Jay Appleton, *Geographical Review*, 68(1), 106-108

Bourassa, 1990, A paradigm for landscape aesthetics, *Environment and Behaviour*, 22(6), 787-812

Bourassa, S., 1991, *The Aesthetics of Landscape*, London: Belhaven.

Bunks , E.V., 1977, Reviewed of 'The Experience of Landscape' by Jay Appleton,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67(1), 150.

Eisner, E.W., 1979, *Educational Imagination: On the Design and Evaluation of School Program*, NewYork: Macmillan Publishing Co.

Tuan, Yi-Fu, 1977, Reviewed of 'The Experience of Landscape' by Jay Appleton, *Professional Geographer*, 28(1), 104-105.